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며 행선으로 순례를 함께하는 순례단은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도반이다.

팔만사천 법문 가슴에 새기고 부처님 계신 영축산으로 향하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지극한 신심과 원력으로 길을 나선 상원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법사리를 친견하고 진신사리를 모신 불보종찰 통도사를 향해 나아갔다.

순례단은 10월8일 황금빛 물들어가는 들녘을 지나 경남 거창에 도착했다. 새벽 5시 갑작스레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천리순례를 시작한 후 처음 맞이한 비소식에 우의를 꺼내 입는 순례단의 얼굴에도 먹구름이 일었다. 빗속을 걷는다는 건 불편을 넘어 잠자리와 다음 일정까지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행선 내내 순례단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고 다행히 빗방울은 잦아들었다. 부처님의 가피였다.

순례대중 김나현 불자는 “삼보 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송광사가 재적사찰인 그의 본명은 쑤응 티 펑리로 베트남 호찌민이 고향인 결흔이주여성이었다. 그는 “지난해 언론을 통해 자비순례를 접한 후 큰 감동을 받았고, 올해는 삼보사찰을 걸어서 참배한다고 해 남편과 두 딸에게 양해를 구해 순례에 나섰다”며 “불법승 삼보에 공양하는 마음으로 걷고 있다. 함께하는 모든 분과 건강하게 순례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흥류동 계곡 맑은 물소리 벗 삼아 가야산 품에 들었다.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해 순천, 곡성, 구례, 남원, 함양, 거창, 합천까지 7개 시군 223km를 행선해 9일 만인 이날 두 번째 성지인 법보종찰 해인사에 도착한 것이다. 7km의 소리길을 지나 해인사 일주문에 도착한 순례단은 국화꽃으로 장식한 화엄일승법계도를 따라 걸으며 이곳이 법보종찰임을 실감했다. 법계도를 따라 화엄의 골수를 음미한 순례단은 곧바로 장경판전의 팔만대장경을 친견했다. 고졸하면서도 기품이 넘치는 판전 안에는 8만 개가 넘는 경판들이 800여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도 판각 당시의 옛 모습 그대로 순례단을 맞이했다.

9일자 회향법회는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주지 현응 스님을 비롯해 해인사 사부대중이 함께했다. 방장 원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시비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 바탕이 ‘법보’이고, 거기에서 나온 지혜가 ‘범보’이며, 그 바탕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승보’라며 “삼보는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다.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 마음자리를



순례단은 10월8일 경남 거창을 지나 9일, 법보종찰 해인사에 도착해 팔만대장경을 친견했다. 곳은 날씨에도 멈춤 없는 정진으로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까지는 101km를 남겨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10월9일 해인사서 대장경 친견 황금빛 들녘 지나 비바람 맞으며 통도사 향해 정진 의호대중 노고로 무탈히 진행...모녀·부부 도반 눈길

갸달아 부처의 삶, 지혜의 삶, 도인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길을 떠나거라. 여러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설하라.”

부처님의 법을 친견하고 전도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다시 길 위에 선 순례단은 10월10일 경북 고령에 도착했다. 천리순례에는 비구 48명, 비구니 6명, 우비새 14명, 우바이 26명 등 94명이 순례길에 올랐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며 행선으로 순례를 함께하는 순례단은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도반이다. 이번 순례도반 중에는 가족이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7조 하정수·박선민 순례대중은 모녀 참가자다. 엄마 하정수 불자의 권유에 딸 박선민 불자가 앞장섰다. 하정수 불자는 “지난해 자비순례 기사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마침 분은사 스님들이 천리순례 동참을 제안해 주저 없이 참여를 신청했다”며 “출발 전 공황장애 진

단을 받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순례를 하면서 약도 끊을 만큼 크게 좋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길이지만 딸이 동행하고 여러 도반들이 함께해 큰 어려움 없이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며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감사함을 느끼며 내년에 다시 순례길이 열리면 큰맘에게도 함께하자고 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민 불자는 “마침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순례에 동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엄마가 건강해서 발걸음이 더욱 가볍다”며 “욕심부리지 않고 내려놓으니 모든 일이 감사하게 됐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심하며 정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6조 이세옥·8조 윤재웅 대중은 부부다. 이세옥 불자는 “지난해 자비순례에 다녀온 남편이 너무 좋았다고 자주 이야기해 많은 사람이 왜 이 길을 걷는지 느껴보고 싶어 따라나섰다”며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함께 회향법회 갖기를 기도한다. 통도사에 도착하면 부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고 웃음을 보였다.

윤재웅 불자는 “우리는 부부이기 전에 초등학교 동창이고 함께 정진하는 오십년지기 도반이다. 천리순례에 함께 나서준 도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천리순례길에는 되도록 생각을 비우고자 한다. 오직 순례에만 집중하며 함께 회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천리순례 11일자 일정은 빗속에서 진행됐다. 하루 전 기상청에서 남부지방의 많은 비를 예보한 탓에 안전을 위해 4시간 늦게 순례를 시작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토해낼 듯 검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지만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한 순례단의 걸음은 막을 수 없었다. 기로 수 출지어 선 국도를 따라 1시간여 행선을 이어가던 순례단에 답답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처음 몇 방울 떨어지는가 싶더니 금세 대지를 적셨고 이내 거센 바람까지 몰아쳤다. 파사로운 햇살만큼이나 비 또한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자연의 섭리다.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진 존엄한 삶의 길을 알리기 위해 떠나온 순례이기에 순례단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동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자비순례에 이어 천리순례에도 동참한 이현희 불자는 “빗속을 걷는다는 게 불편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쏟아지는 물방

울에 내 마음의 티끌도 함께 씻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걸음에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보신문과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과 운영지원기관 서울 영등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점심공양을 보시했다. 가을비를 맞으며 행선한 순례단을 위해 우동과 아묵 등을 준비해 큰 박수를 받았다.

빗줄기는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인도마저 지워진 국도를 따라 걸어야 했기에 순례단의 앞과 뒤, 그리고 중간중간 순례단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도로의 상황을 전달하는 무전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으로는 도로의 장애물을 확인하고, 손에 든 경광봉으로 외부에 순례단의 위치를 알렸다.

천리순례단의 안전은 동국대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나누어 맡았다. 서울캠퍼스는 10월1일 송광사부터 9일 해인사까지 책임졌으며, 경주캠퍼스는 10일부터 18일 회향지인 통도사까지 안전요원을 파견해 순례단을 지원했다. 2차 안전팀장을 맡은 권영선 동국대 경주캠퍼스 중앙지원팀장은 “10명의 안전요원은 랜턴으로 순례단의 가야 할 길을 밝히고, 호루라기로 사부대중이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면서 순례를 진행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경광봉

은 우리가 하나임을 표현한다”며 “불교 중흥과 국난극복, 동국대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완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외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의료원도 안전한 순례를 위해 의료팀을 파견했다. 많은 인원이 하루 평균 25km를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 물집과 통증을 비롯해 낙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순례단이 멈춤 없이 순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신속한 치료와 대응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팀장 김명숙 동국대의료원 대외협력 홍보팀장은 “순례길에는 작은 통증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순례단의 회향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소임에 힘하고 있다”며 “회향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10월13일 경남 창녕을 출발한 순례단이 부곡로얄관광호텔에 배낭을 내렸다.

공양시간은 순례길에서 만나는 즐거움 중 하나다. 행선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채울 뿐 아니라 지친 몸을 잠시 가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하는 순례단의 일정에 맞춰 150인분의 세끼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아침공양은 삶은 계란과 굴, 치즈, 요구르트, 바나나 등 간편식이 제공되며, 점심과 저녁은 대부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다. 공양지원팀장 정영숙 봉사사 총무실장은 “천리순례 일정이 확정된 후 지역의 도시락 업체를 직접 방문해 메뉴를 조정하고 최대한 따뜻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조율했다”며 “매일 순례단을 맞이하고 환송하면서 순례단이 순례를 이어가는 데 힘을 보태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와 경찰 등에 순례 관련 정무를 담당하는 진형1팀장 천은사 주지 대신 스님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순례단이 머문 자리를 정리한다. 스님은 “순례자들이 떠난 뒷자리는 깨끗하고 정돈되며 아름다워야 한다”며 “해서 늦게까지 남아 떠난 자리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미처 정리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더 살피고 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가 아름다운 순례길에 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10월14일 현재 322km를 정진했으며, 회향지인 불보종찰 통도사 101km 앞까지 다가갔다.

거창·합천·고령·창녕·부곡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